



오늘의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_에베소서 4:16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2 신년 특집 | 4 온라인 비전트립 | 7 목회칼럼 |
| 3 교단 소식 | 6 선교사 소감 | 8 공동체 소식 |



코로나19의 장벽을 넘어 함께 그리는 꿈

‘비전트립’은 ‘구체적인 선교 현장의 가능성과 필요를 보고 자신의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는 징검다리’로 사용되는 선교사역 유형’을 뜻합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주님의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세계선교부에서 2008년 5월 6일 ‘비전트립 지도자 세미나’를 열고 ‘단기선교’를 ‘비전트립’이라고 이름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그리는 꿈은 코로나19와 근본주의의 장벽을 넘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 관련기사 4면

하나님의 가족, 나의 가족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빠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렸을 때만 해도 사진을 한번 찍으려면 필름을 사서 카메라에 끼우고 사진을 찍어 인화를 해야 했다. 그러나 요즘엔 누구나 손에 카메라를 들고 앱 하나만 열면 사진은 물론 동영상도 찍을 수 있다. 그냥 사진뿐 아니라 여러 효과들을 넣어서 더 멋진 사진을 찍기도 한다.

나도 종종 아이들의 여러 모습을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로 찍는다. 몰래 자연스러운 모습을 주로 찍는데 사진을 찍는 순간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소리를 못 듣게 하기도 하지만 8살인 작은 아들은 아빠가 자기를 찍은 거 같으면 바로 달려와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져간다. 능숙하게 갤러리를 열어보고 자기가 찍힌 사진이 있으면 휴지통으로 던진다. 만족한 표정을 짓고선 스마트폰을 돌려주며 나를 한번 찌려보고 다시 하던 일을 마저 한다. 내가 순순히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내어주고 사진을 삭제하게 둔 것은 아이가 아직 휴지통에 담긴 사진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여유롭게 다시 사진을 사진첩에 복원하고 잘 나온 사진을 골라 SNS에 올리기도 한다.

아이에게 사진을 왜 지우냐고 물어보았다. 아빠가 자기 사진을 자꾸 어디 올리는 게 싫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의 사진을 부모의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한 기사를 본 것이 생각났다. 부모가 무심코 올린 아이 사진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습과 생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기까지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SNS에 올리게 된다. 책을 보는 모습,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 아빠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기 싫어 사진 찍는 것조차 꺼리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많이 찍고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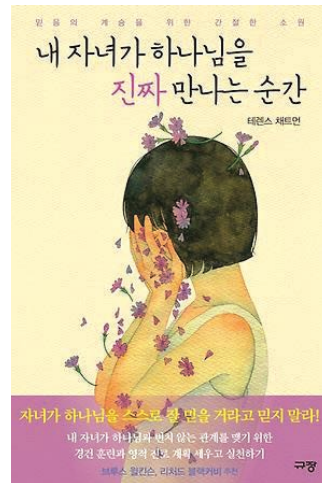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까 생각해본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에 만족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행복한 모습들을 보시며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실 텐데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어두운 마음으로 원망하며 짜증내며 무기력하게 주어진 삶을 억지로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

물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실 것이다.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이왕이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모습,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책 속의 명문장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



테렌스 채트먼, 규장, 2018

● 가정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엄마와 아빠가 있다면 활력 있는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선순위를 당신의 가정에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 ●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 자녀들이 출가를 했다고 해서 아버지 노릇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가족에게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 유산이다. ● 하나님은 당신을 부모로 만드셨고,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피조물을 맡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인도하고 보살피게 하셨다.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 우리 중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이다. 모두 배우고 성장하며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시작한다.

● 만일 당신이 성경을 모른다면 당신 자녀들에게 성경을 생생하게 들려줄 수 없을 것이다. 자주 기도하지 않는다면 막연하고 일반적이며 인간미 없는 용어들로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단 한 가지가 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언젠가가 아니라 매일!

● 당신이 내일 또 다른 죄의 유혹과 싸워 물리칠 때, 그 싸움은 당신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 자라게 될 후손들까지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 우리가 키워야 할 사람은 자신이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해 하는 일들이 곧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임을 아는 믿음의 세대이다.

●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그 말씀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다. ● 내 참된 정체성이 내 직함이나 직무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할 목적으로 내 삶에 보내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이다. ●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이 헌신적이며 당신이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 하나님께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비전을 달라고 간구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시한 비전을 당신의 기준으로 삼고 충실히 따르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 답은 언제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 나는 우리 가정의 다음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삿2:10) 자들로 자라는 걸 절대로 원치 않는다. ●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오직 그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 나아간다. ● 우리는 부모로서 이 상을 위해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 유산을 남기라

교단 소식
한국기독교공보 특집기사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신학적 응답 모색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2021.8.16)에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같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국교회가 생각해야 할 신학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신학-기술 공생 목회 네트워크가 소개되었습니다.

전문을 인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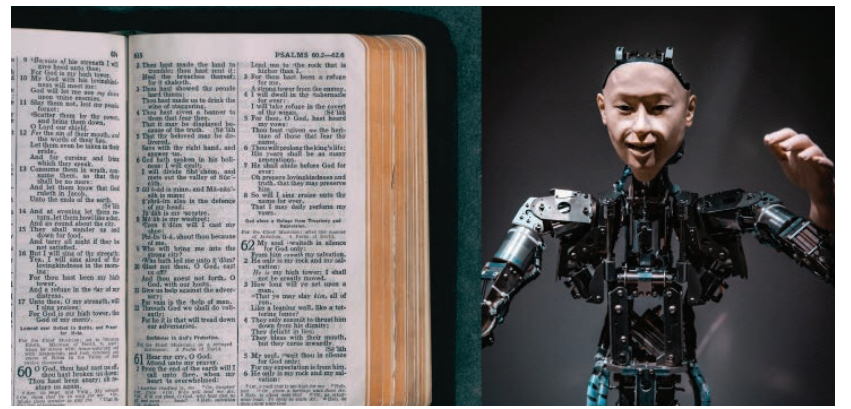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출현이 예고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신학은 어떠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새로운 차원의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 속에서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현대 젊은 세대들에 대한 목회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이 변화시킬 사회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응답을 하기 위한 '신학-기술 공생 목회 네트워크(KTTN, Korea Theology and Technology Network)'가 출범될 예정이어서 교계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를 주축으로 한 10여 명의 신학자들은 연구와 토론 등을 통해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디지털 문화와 기술문명을 어떻게 사유하고 목회 현장에서 실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지혜를 모으기 위해 오는 21일 KTTN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

KTTN은 20~30대의 사역자 및 젊은 목회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독교 AI 로봇 전공자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미래교회의 방향을 신학, 기술, 그리고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KTTN 출범을 주도해온 김은혜 교수는 "KTTN(신학-기술 공생목회 네트워크)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목회가 단지 온라인 예배와 개인적 영성에서 대안을 찾는 것을 넘어 다음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축소할 수 없는 목회적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신학자들의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라고 네트워크의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팬더믹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가 지구촌 어느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게 초래되는 지엽적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위기임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이제 어느 특정 전문분야나 전문가의 역량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참고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과학-기술-철학-신학의 해석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 성찰을 도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KTTN은 과학-기술-철학-신학의 융합을 통해 최근 SF영화 등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윤리의 문제',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상현실 베이스의 게임 등으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메타버스 교회' 개척의 가능성, 기술을 이용한 진화로 반영구적인 불멸의 존재인 포스트휴먼이 등장할 경우 인간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탐구 등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과 이로 인한 혼란이 예측되는 가운데 새로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KTTN은 세부 연구의 범주로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학과 인간학 △디지털 신학과 목회 △한국적 문화신학의 모색 : 디지털 문화와 K-Christianity △팬더믹 이후 (사물)생태 신학 △팬더믹 이후 (사물)생태 신학 △포스트휴먼 시대의 정신건강과 영성신학 등을 설정했다.

KTTN에 동참하는 신학자들은 김은혜 교수를 비롯해 박일준(감신대, 종교철학), 윤영훈(성결대, 문화신학), 이민형(연세대, 예배학/문화신학), 정대경(송실대, 종교와 과학), 손화철(한동대, 기술철학), 송용섭(영남신대, 기독교윤리), 이은경(배재대, 기독교 교육), 이성호(연세대, 종교와 과학), 이준우(강남대, 사회복지), 김승환(장신대, 도시신학), 홍창현(Trinity College Dublin, 평화신학/상호문화신학), 정부활(Technische Universitat Dresden 독일/ 과학기술과종교분야: '가상현실기술과 교회 공동체'로 논문 중) 등이다.

표현모 기자

교단 소식
한국기독교공보 기사 요약

유튜브 알고리즘 '이단사이비 영상' 시청 주의

이단사이비 비판 전문언론인 기독교포털뉴스(대표:정운석)가 '유튜브에서 이단 분별하는 11가지 지침'을 최근 만들어 주목을 끈다. 이 자료에서는 건전과 불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 항목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를 읽고 4가지 항목 이상 체크가 되면 이단사이비 단체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암호식 비유풀이로 성경해석을 한다', '성경공부하는 것을 비밀로 하라고 한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고 한다', '직통 계시를 말하며 공포감을 조장한다' 등 유튜브 채널 시청을 하다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배웠다면 체크를 하고 총 11가지 질문 중 1~2가지만 해당해도 예의주시, 3~4개에 해당하면 문제단체, 그 이상이 체크가 되면 이단사이비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정통교단 총회가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한 곳들의 공식명칭과 엠블럼 등도 표시해 성도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실생활 현장에서도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독교포털뉴스 정운석 대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도들의 유튜브 시청이 늘고 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이단사이비 혹은 문제단체의 설교나 강연이 추천 영상으로 연결되면서 본의아니게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넘쳐나는 불량식품같은 정보들을 분별하며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독교포털뉴스는 pdf파일을 자사 사이트(www.kportalnews.c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동하 기자

교회 소식 | 비전트립

2021년도 온라인 비전트립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주님의교회는 네 곳의 나라에서 온라인 비전트립을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비전트립은 선교지와 한국교회를 ZOOM으로 연결하여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팀은 키르기스스탄의 미르교회와 카라콜 가정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교회의 성도와 카라콜 교회의 성도가 신앙 간증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비전트립은 베트남 교회의 역사와 베트남에 있는 한인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한 강의를 통해 베트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팀은 스페인어로 사령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오랜 시간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금상호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

니다. 필리핀팀은 유성훈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필리핀의 목회자들과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활용할 종이접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거주할 지역에 공용화장실과 공용샤워실을 만드는 기공식 행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비전트립은 처음 실시하는 낯선 방식이었지만, 교구 목사님들과 해외선교위원회의 각 지역 팀장님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기대 이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온라인 비전트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윤경수 목사



키르기스스탄 (3,6교구)



베트남 (1,4교구)



2021년(2020년)

베트남 역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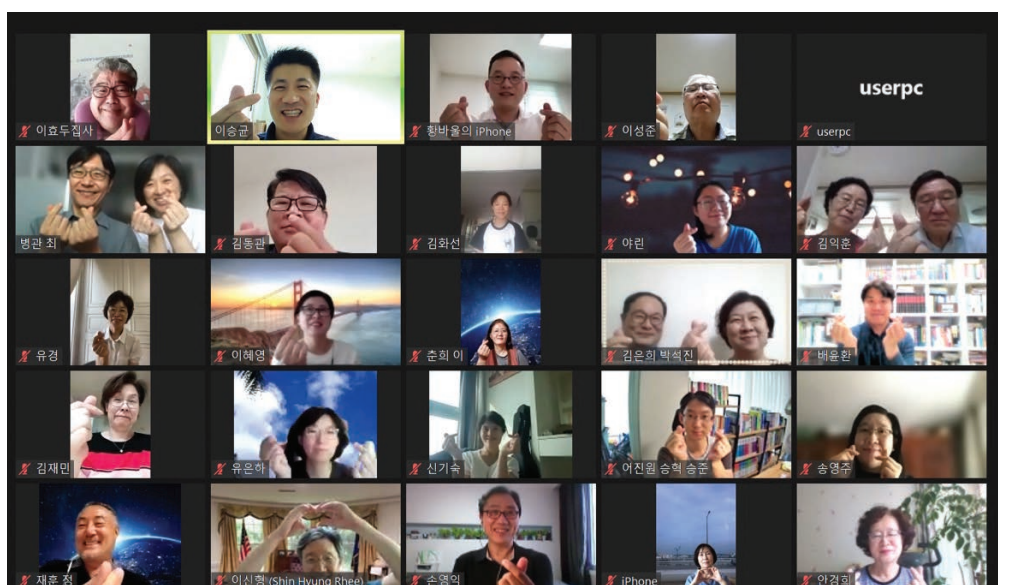
1. 중국 지배 (BC179-AD938) : 안남도호부 설치
2. 왕조 시대 (AD939-1858) : 응오, Đinh, Lê, Lý, Trần, Nguyễn 왕조
3. 프랑스 식민지 (1858-1954) : 독립 투쟁의 시기, 호치민 등장
4. 남-북 분단 (1955-1975) : 1,2차 인도 차이나 전쟁, 남북통일
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1976-현재) : 도이마이 정책(1986)

베트남 문화 이해

1. 중국문화의 영향 : 철기문화, 유교 문화의 영향 큼.
2. 남북 문화의 이질성 :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 가능.
3. 실용적 가치 중시 :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다양한 경험.
4. 신앙적 특징 : 뿌리깊은 조상 숭배와 불교 영향, 천제 지형.
5. 가족 관계 중심 : 호랑의 발달, (가족 관계 -> 사회관계)

베트남 사회 이해

1.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의 시장경제 도입
2. 지역주의와 개인주의 융합
3. 베트남의 빠른 경제 발전과 그 부작용
 - 부정부패, 노동 간의 심한 격차
4. 한국과의 관계적 특수성
 -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



교회 소식 | 비전트립

 코스타리카 (2,5교구)



Cuatro Leyes Espirituales
사명서

Ley 1: Dios te ama y tiene un plan maravilloso para tu vida.
제 1 영리 :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Ley 2: El hombre es pecador y está separado de Dios, por lo tanto no puede conocer ni experimentar el amor y el plan de Dios para tu vida.
제 2 영리 :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Ley 3: Jesucristo es la única provisión de Dios para el pecador. Sólo Él, puedes conocer el amor y plan de Dios para tu vida.
제 3 영리 :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Ley 4: Debemos recibir a Jesucristo como Señor y Salvador mediante una invitación personal; entonces podremos conocer y experimentar el amor y el plan de Dios para nuestras vidas.
제 4 영리 :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6 de Agosto, 2021. La Iglesia Presbiteriana del Señor, Jiye kim
2021년 8월 6일, 주님의교회 김지예

Cuatro Leyes Espirituales

Ley 1: Dios te ama y tiene un plan maravilloso para tu vida.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Ley 2: El hombre es pecador y está separado de Dios, por lo tanto no puede conocer ni experimentar el amor y el plan de Dios para tu vida.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Ley 3: Jesucristo es la única provisión de Dios para el pecador. Sólo en Él, puedes conocer el amor y plan de Dios para tu vida.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Ley 4: Debemos recibir a Jesucristo como Señor y Salvador mediante una invitación personal; entonces podremos conocer y experimentar el amor y el plan de Dios para nuestras vidas.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2021년 8월 3일 주님의 교회 이유진 Lee Eugene

 필리핀 (7,8교구)



교회 소식 | 비전트립

소감 | 키르기스스탄

한정된 삶의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시대를 견고 있는 지금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 까지도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이 사용해야 할 부분임을 느낍니다.

2021년 7월 23,24일 양일간에 있었던 키르기스스탄 온라인 비전트립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를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교구와 6교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중앙아시아 팀장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섬김과 헌신, 또한 골방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는, '과연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서로가 교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하는 조바심을 완전히 무색하게 했습니다. 팀원 중 한 분이셨던 어느 권사님께서 손수 만드신 현지 전통 모자를 쓰고, 현지어로 찬양을 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찬양, 은혜의 말씀과 간증은 키르기스 영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주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는 영적인 이산가족을 만나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전트립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과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에 부여하신 은혜를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누가 키르기스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비전트립 이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땅의 영혼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으셨구나,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단회의 행사로써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나라와 종족과 거리를 초월해서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며 '함글함글'하는 귀한 시간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나바 선교사

소감 | 코스타리카

주님 안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세상과 더불어, 선교지 또한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비전트립이라는 낯선 경험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온 지 27년이 되어가고 나이도 내년이면 환갑이 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선교'는 아직도 설레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비전트립? 팬데믹이라는 단어와 상황만큼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지 27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부담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주요 사역 대상들인 도시 빈민, 인디오, 지방의 바나나 농장 지역들은 인터넷이 없거나 있어도 신호가 약해서 줌으로 사역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면 사역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 줌으로 비전트립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줌 사역이 거의 안 되는 이곳 사정상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총무님,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준비하고, 배우기도 하며 감사함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덥고, 휴가철 등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준비모임을 비롯하여 이들 동안 참여해주셔서 선교지에 대한 귀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라는 말을 쓸 때는 공식처럼, 땅 끝 선교라고 말은 하지만, 팬데믹 이후 거리가 먼 땅 끝은 선교사 파송 자체가 중단되거나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근거리 선교 위주의 현실에서 선교지가 먼 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만큼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먼 곳 땅 끝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원 물품비를 넉넉히 보내주셔서, 물품들을 구입해서 필요한 현지인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 해 본 온라인 비전트립이라 좀 서투르고, 어려움 점들도 있긴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선교적 방법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고, 앞으로 선교적 변화 등에 대한 대안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면서 고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와 교우들의 선교적 사랑이 여러 가지로 큰 힘과 격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 비전트립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상호 선교사

소감 | 베트남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은혜 중에 온라인 비전트립을 잘 마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으로 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비전트립 사역이라 준비하면서 기대 반 우려반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전트립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까?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기도 했었지요. 최근 들어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눈앞이 캄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계획했던 현장사역 중심 대신 베트남, 베트남 교회, 베트남의 한인선교 사역 소개 등, 베트남 선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특강들을 중심으로 미셔널 위십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번 베트남 온라인 비전트립을 통해서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가진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주님의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줌 모임에 성실히 참여해 주셨고, 긴 시간 차분히 청경하며 질문도 해주시고, 준비 기간 중 일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기도해 주셨고, 복습 퀴즈에 열렬히 참여하여 나눈 내용들을 서로 확인하는 등,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리고 한 화면에 모든 분들의 얼굴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참여한 분들의 마음들이 느껴져서 정말 감격과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담임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해 주신 손영익 장로님 이하 모든 해선위 위원들의 수고. 특히, 베트남 온라인 비전트립을 위해 직접 손발로 뛰어주신 이승균 팀장님, 황목사님. 배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4교구를 비롯하여 베트남 온라인 비전트립에 함께해 주신 모든 주님의교회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화평 선교사

소감 | 필리핀

필리핀은 7월부터 한 달 내내 폭우가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지 5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길게 폭우가 지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연이어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인데, 무섭도록 쏟아 붓는 열대성 폭우를 보고 있노라면, 내리는 빗물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말끔히 씻겨나가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곳은 작년 3월의 팬데믹 수준의 경계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지역마다 다시 검문이 엄격해지고 선교지인 딜라딜라 지역은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시청은 긴장하고, 우리에게만 예외적으로 가정 방문을 허용해 주기는 어렵다 했습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필리핀의 상황과 선교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산속 아이따 마을을 방문하고 동영상 제작하여 실시간 예배를 대신하고 싶었지만, 불어난 강물로 인해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날씨의 변화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비전트립 시작 한 주 전부터,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월요일 아침에 아이따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강을 건널 수 있었고 마을에 도착해서 몇 가정을 방문하고, 준비한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하늘이 심상치 않아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오니 비가 쏟아졌고, 하나님께서 줌으로 열리는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전트립 첫날 동역하는 현지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팀에서 특송과 종이접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지 목회자의 대부분이 실시간으로 한국과 연결된 예배에 놀랐고 또 필리핀을 향한 수많은 한국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에 감격하였습니다. 첫 모임이 끝난 후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둘째 날 주님의교회가 지어주는 공용 화장실과 공용 샤워시설, 지하수의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산따리따 시장, 부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주님의교회의 헌신에 연신 감사하다 인사를 건네고, 복지와 교육 그리고 예배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폭우와 팬데믹으로 마음 졸이며 비전트립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친히 앞서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를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 저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응원하며 필리핀을 품고 기도해주신 주님의교회와 필리핀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유성훈 선교사

목회칼럼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고

가상의 세계에서든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관계 맺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미완성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간이 어느덧 두 해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코로나가 등장한 이후에 요즘은 코로나라는 단어가 대화 중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시대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코로나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매일 뉴스에 등장하면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추측과 논의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와 함께 할 시대라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포스트 코로나의 “변환(Transformation)”을 요구하는 뉴노멀 시대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의 커뮤니티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정체성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MZ 중심의 세대들이 가상현실에서 만들어 가는 메타버스입니다.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의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MZ세대를 위한 메타버스를 새롭게 교회에 접목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혹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가치에 맞춘 세대는 과거부터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가상현실에서 신앙을 추구하든, 다시 현실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적인 질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규명하고 본질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이웃과 사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가 찾아오는 시점이 된다면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닌 ‘교회는 어떤 곳이며 왜 존재하는가(=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들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공동체의 잘못된 판

단이 개인의 삶을 어떤 결과로 만들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기적인 공적인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도록 했는지 아픈 기억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과했을 수 있지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아픔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되는 그 순간부터 남녀를 넘어 사람과 사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관계 맺음, 형제와의 관계 맺음은 더욱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서로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창조의 본질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더욱 잘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고 가상의 세계에서든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관계 맺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미완성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답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올 바이러스가 교회와 성도의 삶을 뒤흔들지 않도록 시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교회는 어떤 곳이며 왜 존재하는지, 유기적인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의 그 이야기를 준비하고 들려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1)김기봉,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명명 패러다임”, 『철학과 현실』 제126집(2020) : 108

2)위의 글, 114-115

3)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네이버, ‘MZ세대’ 사상상식백과

4)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네이버, ‘메타버스’ 사상상식백과

교회소식

가을학기 양육클래스 안내

2021년 2학기 양육클래스가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 과정에는 ‘열왕들의 이야기’, ‘The way of Jesus’, ‘성경 속의 여인들’의 세 강의가 계획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다루는 소망과정은 ‘기독교신앙-요건 꼭 알아야 되지요!’, ‘믿음 이야기’, ‘한국교회 이야기(서울, 경기편)’, ‘성경 속 교회 이야기’, ‘Hot Christian Songs 명곡 리뷰’의 다섯 강의가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환경을 다루는 사랑과정은 ‘그림으로 떠나는 미술 순례’, ‘EBS(Eco Bible Study)’, ‘온라인 퍼스펙티브스 PSP’의 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은 8월 22일(주일)부터 3주간 동안 ‘교회 홈페이지-배너’ 또는 각 해당 강의 담당 목사님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신청하실 수 있고, 개인당 세 강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깊어져 가는 가을 우리의 신앙 또한 풍성하게 무르익어 열매 맺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박주영 목사



온라인 2021가을학기 양육클래스

9.5 ~ 11.20
추석연휴 휴강

 믿음 과정	• 열왕들의 이야기 이은석 목사 • The Way of Jesus 윤경수 목사 • 성경 속의 여인들 이대혁 목사
 소망 과정	• 기독교 신앙 - "요건 꼭 알아야 되지요!" 허 준 목사 • 믿음 이야기 황바울 목사 • 한국교회 이야기(서울,경기편) 박주영 목사 • 성경 속 교회 이야기 한시영 목사 • 빌보드 Hot Christian Songs 명곡 리뷰 이진희 목사
 사랑 과정	• 그림으로 떠나는 미술순례 이종성 목사 * ZOOM 실시간 비대면 강의, 토 오전 10시~11시 30명 선착순 • EBS(Eco Bible Study) 배윤환 목사 • 온라인 퍼스펙티브스 PSP 미션파트너스 (해외선교분과위원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8.22 (주일) ~ 9.5 (주일) • 신청방법 교회 홈페이지 → 양육과 훈련 → 양육 → '양육클래스'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문 의 박주영 목사 (010-3347-0390)

모십니다

재택의 시대, 정말 가치 있는 재택 사역!

홍보출판부에서는 <함글함글>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출판물을 만듭니다. 저희는 교회 역사의 소중한 자료인 <함글함글>을 홈페이지에 창간호부터 수록하는 일과 함께, 모든 기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검색을 통해 찾고 싶은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넣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원봉사하실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함글함글>의 PDF 이미지를 메일로 받으신 후 맥에서 워드 파일로 전환하셔서 메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재택의 시대, 재택으로 가능하며 틈틈히 주님의교회 역사 기록을 정리하는 이 소중한 사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함글함글 디지털화 사역 지원"제목과 함께 연락처와 성함을 보내주세요!

홍보출판부

교회일정

- 8/27(금)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 9/1(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 9/4(토) 어와나 2학기 개강
- 9/5(주일) 양육클래스 개강

알립니다

1. 2021년 하반기 겨자씨인도자수련회

일시 : 8/27(금) 오후7:30(유튜브 실시간방송)
대상 : 겨자목, 겨자채, 겨자씨인도자, 권찰
특강 : 김화권 교수(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구별모임 : 8/24(화)~26(목) 중 ZOOM 온라인 활용

2.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양육클래스

일정 : 9/5(주일)~11/20(토)
신청기간 : 8/22(주일)~9/5(주일)
문의 : 박주영 목사(010.3347.0390)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